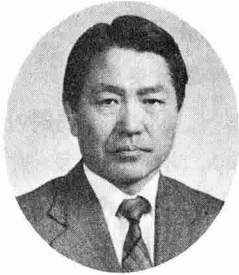


60年代 大韓産業保健協會活動의 回顧

—産業保健行政과 關聯하여—



国立労働科学研究所
所長 尹錫春

本人은 '60年代初부터 近10年間 産業保健行政의 實務를 擔當하였는데 그 時機는 政府에서 第1次 5個年經濟開發計劃을 樹立하여 産業立國에 全力을 기울이던 때로서 工業化의 成果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例를 들면 協會가 發足한 당시인 '65年度에는 5人以上 業體 10,184個所(勤勞者 52萬名)로서 現在의 '84年度 10萬業體(勤勞者 4百萬名)에 比하면 그 당시의 우리나라 産業規模를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64. 7월에 發足한 大韓産業保健協會의 活動은 相當히 刮目한 바 있었고 産業保健發展에도 크게 寄與하였는데 '60年代를 回顧하면서 産業保健行政과 關聯된 部分만의 記憶을 더듬으면서 쓰기로 한다.

〈當時行政與件〉

'70年度까지는 勤勞監督官이 各市道廳에 駐在形式으로 總員이 55名 밖에 없었고 本部 産業安全課의 發足도 '67年度에야 이루어

어졌다.

勤勞基準法은 '53年度에 制定되었지만 이에 따른 大統領令인 勤勞保健管理規則은 5. 16革命後인 '61年 9월에야 制定되었는데 이 規則에는 健康診斷, 保健管理者 및 要員配置와 職務 그리고 有害物의 基準등이 規定되어 있었으며 '62年 7월에는 保健管理者 및 要員의 資質을 向上시키기 위한 保健管理者 및 保健管理要員等 訓練規程이 制定되었다.

勤勞者 100人以上 業體에 醫師인 保健管理者와 保健管理者를 補佐하는 保健管理要員을 두도록 하였는데 特히 專任인 保健管理者를 選任하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管掌業務가 豫防醫로서의 任務가 強調되었는데 治療醫로서 役割을 事實上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理想과 現實의 調和가 힘 이 들었다. 保健管理要員은 너무 자주 바뀌어서 持續적으로 業務秩序를 確立하는데 애로가 많았다.

이와같은 難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訓練規程도 만들고 訓練을 이수하면 長官의 資

格證까지 수여하여 資格證을 소유한 자만을 有資格者로 인정하였는데 이 制度는 先進外國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서 初期 産業保健의 基本體制를 構築하고자 하는 강한 意志였다고 생각된다.

앞서 기술한 關係法令을 수행하는데 있어 많은 技術的 業務遂行과 諮問이 필요하였는데 相當期間동안 實務者로서 本人만이 있었기 때문에 協會의 役割이 重要な 位置를 占하고 있었다. 例示하면 健康診斷 實施, 有害環境測定 및 評價, 保健管理者 및 要員教育 등 緊密한 協助 事項으로 들 수 있겠다.

〈協會의 役割〉

1. 組織의 發展

가. 앞서 指摘하였지만 協會가 發足될 時機만해도 綿紡織, 고무製品 등을 中心으로 보잘것 없는 産業規模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協會會員도 小數의 專任 保健管理者 各 醫科大學 教授陣 등으로 構成되어 어려운 여건속에서 發足되었는데 發足以後 괘목할만한 發展을 이룩한 것은 무엇보다도 가톨릭産業醫學研究所 教授陣容이 헌신적인 봉사에 기인되었다고 판단된다. 會長(崔永泰) 傘下에 總務·學術·事業·訓練部를 두고 工業地帶인 永登浦와 馬山에는 씨비스 센터를 설치하여 事業體 作業環境測定, 健康診斷, 患者實費診療를 비롯한 勤勞者 健康管理을 위한 諸般事業을 展開하였다.

한편 零細業體가 密集되어 있는 東大門 平和市場商街를 비롯한 7個地域에 勤勞者 福祉病院을 두어서 아주 廉價로 疾病豫防과 醫療事業을 하였다. 支部도 서울을 비롯하여 10個地域 支部를 組織하여 地方所在 醫大를 中心으로 活動하므로 地域 産業保健發

展에 寄與하였다.

나. '64年 7月 처음으로 産業災害補償保險法이 公布, 施行됨에 따라 協會는 産業災害補償保險委員會, 塵肺審査委員會, 職業病클리닉을 두어 同法施行에 따른 廣範圍한 諮問과 施療를 提供한 바 있다.

2. 活潑한 事業展開

가. 健康診斷과 治療事業

勤勞保健管理規則과 同 施行細則이 制定됨에 따라 健康診斷도 本格的으로 實施하게 되었는데 우선 勤勞者 30人 이상을 사용하는 業體에 대하여 시행하였다.

특히 產保協發足以前인 '63年度에는 檢診의 示範實施와 患者事後施療 그리고 疾病罹患率을 調查하기 위하여 가톨릭產醫研, 大韓結核協會, 石公長省醫療院에 委囑하여 全國事業場巡廻檢診을 실시하였다. 發見된 職業病患者는 勤勞基準法에 따라 業主責任下에 治療해주고 당시 크게 문제시 되었던 結核患者는 保健所에 登錄하여 무료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措置하였다. 이 事業은 지금 같이 工業化가 이룩되어 事業體 및 勤勞者數가 많은 事情下에서는 도저히 不可能한 일이나 當時 有害部署에서의 檢診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는 형편에서 全國的 示範檢診은 健康診斷의 기틀을 잡는데 一助가 되었다고 본다.

協會가 發足된 후에는 每年 勞動廳 主催下에 各市道廳 所在地를 순회하면서 檢診에 참여할 保健管理者, 要員 그리고 健診醫를 對象으로 徹底한 教育을 실시하였는데 技術的 教育은 協會가 擔當하였다.

有害環境에 從事하는 勤勞者를 위한 檢診은 各支部, 씨비스 센터 및 附屬福祉醫院이 中心이 되어 實施하고 있는데 職業病發見과

豫防에 많은 기여가 있었다.

나. 有害環境調查事業

初創期 勞動廳에는 有害環境을 測定할 수 있는 技術要員과 裝備가 없었고 必要한 경우에는 協會가 實施하고 그 調查 成績으로 勞動廳에서 是正指示를 하였다.

또한 每年 政府豫算으로 産業保健行政上 問題視되는 課題를 用役事業으로 協會에 委任하여 실시하였고 그 結果는 勞動廳에 報告되어 政策수행에 큰 役割을 하였는데 '67年 이후 重要 用役事業은 다음과 같다.

産業保健關聯 用役實績

- 韓國産業場의 安全保健管理實態調查報告書 (1967)
- 生産工程에서 본 作業環境有害因子(1968)
- 事業場安全保健診斷結果報告書 (1968)
- 工業化에 따르는 産業保健管理實態와 災害發生原因 및 그 豫防對策에 關한 調查研究 (1968)
- 事業場內 照明 및 環境因子가 作業能率 및 産業災害에 미치는 영향 연구(1969)
- 各種 職業病判定과 補償基準의 設定에 關한 研究 (1969)
- 産業保健側面에서 본 生産性 阻害因子에 關한 調查研究 (1969)
- 勞動環境 및 職業病調查報告書 (1970)
- 塵肺患者의 障礙等級判定基準과 補償對策 및 豫防管理 (1970)
- 産業人을 위한 職業病解說 (1970)
- 作業環境管理指針 (1970)
- 局所排氣裝置의 設計와 管理 (1970)
- 生産性阻害因子의 調查報告書 (1971)
- 零細企業勤勞者의 勤勞條件 및 社會環境이 그 發育과 健康에 미치는 영향 연구 (1971)

- 騒音으로 인한 職業性 難聽研究 (1971)
- 職業性 皮膚질환에 關한 연구 (1972)
- 勞動環境改善方案研究 (1) (1972)
- " (2) (1972)
- 婦女勤勞者의 作業環境調查 (1972)

다. 保健管理者 및 要員訓練

'62年부터 實施된 保健管理者 및 要員訓練은 國立保健院에서 主管하다가 '67年부터는 産保協에 移管, 實施하였는데 '72년까지 保健管理者 1,294名 保健管理要員 1,738名, 計 3,032名이 履修하여 産業保健의 專門知識 普及에 큰 役割을 하였다.

라. 國際機構와의 協力

國際聯合 傘下 ILO, WHO에서 '64年以來 계속하여 産業安全保健專門家들이 訪韓하여 實態를 調查하고 專門家 나름대로의 意見과 建議事項을 提出하였으며 오늘날 國立勞動科學研究所의 設立도 ILO 專門家の 建議事項이 結實을 맺은 것이며 建議에 따른 UNDP (國際聯合開發計劃) 援助額 83萬弗이 있었기에 內資動員도 可能하였지 않았나 生覺된다. 專門家들이 訪韓할 때 마다 協會와는 緊密한 關係를 유지한 바 當時 開發途上國家로서 協會의 活動이 相當히 注目을 받았으며 國際的인 세미나에서도 우리나라 研究發表文들이 各광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맺 음>

本人은 지난 4月 勞科研에 發命을 받고 人事次 産保協을 방문하였을 때 '60年代에 比하여 擴大된 機構, 人員 그리고 活動相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으며 이와같이 發展하게 된 이면에는 밤낮없이 産業保健發展을 위해 情熱을 다바친 現在 滯美中이신 崔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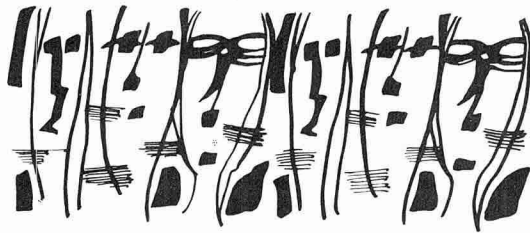
泰博士, 産保協과 가톨릭産醫研을 사실 상 이 끌어 오신 曺圭常博士, 그리고 協會任職員, 가톨릭醫大 教授陣 여러분의 勞苦의 結實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向後 産保協은 더욱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철강, 造船, 電子, 自動車, 化學工場 등 重化學工業의 比重이 더욱 높아가고 있으며 이제 被傭者만도 700 萬名이 넘고 있어 새

로운 有害物質에 對處해야 하는 문제와 근로자의 健康向上 그리고 勞動生産性研究 등 해야할 課題를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아직 協會가 自體會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유감스런 일로 조속히 會館도 마련해야 할 것이며 能率的인 組織管理나 事業展開을 위해 本部中心의 일사불란한 體制下에 더욱 큰 發展이 期待된다.



인 사 의 말

무더운 여름철에 가내 편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인은 그동안 몸담아왔던 대한산업보건협회를 7월말로 사직하고 세무회계사무소를 아래와 같이 개설하였습니다.

여러 선배제현들의 뜨거운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바랍니다.

1985. 7.

강 위 규 배

강 위 규

세무회계사무소 : 서울강남구논현동 54-4
(일심빌딩 202호)

전 화 : 546-8800